

전통문화예술인 175명,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 전통문화예술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강국으로 나아 갈 것 -

‘전통문화예술인 175명’ 이 27일(일) 13시 더불어민주당 당사 4층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 선언했다고 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 미래경제단이 밝혔다. 아울러 이날 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 미래경제단 내 ‘전통문화예술위원회’가 출범했다.

지난달 20일 이재명 후보는 문화예산 확충과 예술인 기본소득, 국민 문화기본권 보장, 지역문화예술 발전,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 문화외교 강화, 문화콘텐츠 세계 제2강 도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예술 정책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전통문화예술인 175명은 이재명 후보의 문화예술정책을 지지하고, 아울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낙후된 민속악 분야의 부흥도 촉구했다.

지지선언에 참여한 전통문화예술인들은 ‘많은 예술분야 중에서 전통문화예술은 우리 민족의 뿌리를 이루는 근간이며,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전통문화예술 발전이 그 기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러한 사명감으로 예술 활동을 하고 있고, 전통문화예술 보존과 발전을 위해서 지지의 마음과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지지선언에는 대표 오지윤 위원장과 박창준 이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식전행사로 사물놀이와 판소리 등 전통문화 공연이 이뤄졌고, 이어 위원장 인사말과 지지선언문 낭독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전통문화예술인들은 앞으로 지속적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기 위해 더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끝)

[첨부] 행사 사진



